

北韓의 국어형성과 그 연구의 顛末*

李 承 旭

- | | |
|----------------------------|---------------------|
| I. 머리말 | IV. 北韓의 국어연구와 언어학연구 |
| II. 方言學的으로 본 북한地域
語의 특성 | 소 |
| III. 北韓의 言語觀과 文化語의
形成 | V. 文化語의 諸規範 |
| | VI. 맺는 말 |

I. 머 리 말

근래에 와서, 북한의 국어현실이 어떠하며 국어연구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전에 비해 많이 해소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묵은 의문들을 말끔히 벗길 수 있을만큼 深層의 인 조사나 분석·검토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 의문들이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진 상황은 아니다. 그것은 이 분야의 연구자체가 不振한 탓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그동안 쌓인 閉鎖의 벽이 너무 두꺼워 쉽게 극복할 수 없었던 장애요인이 현재까지 엄연하게 尙存하고 있는 내외적인 환경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歸結이다.

그러나, 상황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으며, 오늘의 여건만 하더라도 수년 전에 비하면 활짝 열린 상태라 할만하여, 작금에 이르러서는 단혔던 것에 대한 好奇心과 민족의 본질적 문제로서의 當爲論의인 意識에서 관심과 의욕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그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 그것은 대부분 한

* 이 研究는 1989年度 文教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정된 資料의 制約性때문에 실상에 접근하는 데는 限界性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지만, 주로 제기된 문제들에서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역시 언어현실의 표면에 나타난 국어의 異質化現象에 대한 診斷이었다. 그 모두는 하나 같이 국어는 우리 민족의 본질을 이루는 特質의 하나라는 命題아래서 북한에 있어 국어가 異質化된 데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과연 그 異質化라는 것의 특성이 언어의 구성이나 변화의 原理에 있어 어떠한 樣相으로 나타나서 擴散浸透하는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비판이 따라야 하겠다는 반성이 요구 되기도 했다.

本稿는 이런 인식의 바탕위에서 북한의 국어형성에 있어 역사·지리적으로 內在되어 있는 基底의 특성과 그동안 국어연구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結集한 것으로 이해되는 각 부문의 規範體系들을 객관적으로 省察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국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異質化現象의 病理의 診斷을 내리므로써 그것에 對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뜻도 된다.

Ⅱ. 方言學의으로 본 북한地域語의 특성

北韓地域에서 土着的으로 쓰이고 있던 우리말은 본시 국어를 언어지리학적으로 구분할 때 다른 地域語와는 對立關係를 이루는 分枝語의 性質을 가진 方言의 하나다. 方言은 한 언어의 地域的 變種語로서 자체의 音韻·文法·語彙의 體系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디까지나 그 上位言語體系에 구속되어 끊임없는 간섭을 받는 從屬의인 것이다. 다시말해서, 한 언어는 일반적으로 地理·歷史·社會 또는 人種學的인 여러 制約條件의 적용범위 따라 그 안에 言語的 提防, 즉 方言區域을 몇개 가진다. 북한의 국어도 그런 범주의 특정 방언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러므로써 그것은 한편으로 스스로의 言語的 求心力을 가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遠心的인 獨自性도 가지게 되어 中央語로부터 分立할 수 있는 下

位單位의 言語圈을 이루기도 한다.

국어의 方言區域을 나누는 문제는 아직도 論難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대체로 中部와 西北, 西南, 東北, 東南 그리고 濟州를 구분하는 것이 通說이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북한의 方言圈은 西北方言과 東北方言¹⁾을 합친 것에 해당하고, 그것은 각각 平安南·北道와 黃海道일원, 그리고 咸鏡南·北道와 江原道 北部를 묶는 지역에 分布하는 방언으로서 북한의 地理的 境界와 대체로 합치한다. 결국 북한지역어는, 가령 그것을 한 單位語로 想定할 때, 국어의 西北方言과 東北方言 그리고 六鎭方言등, 세개의 分枝語로 이루어지는 언어다.

그런데, 방언을 나누는 言語的 指標가 되는 것은 주로 音韻論이나 形態論의 徵表가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에 근거를 두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 차이의 조건들이 모두 겹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로 나타나 그 경계가 뚜렷하게 그어지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상당한 혼란을 빚기도 한다. 가령, 單母音 /ㄱ/와 /ㄴ/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에서 西北(黃海道 除外)과 東北 그리고 六鎭方言, 즉 북한지역은 대체로 없는 쪽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조건이 적용되는 지역은 북한에 한하지 않으며, 東南 및 濟州方言도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이들의 방언구역을 나눌 수는 없다. 한편 단어내에서 母音간에 끼어 있는 /日/, /入/의 변화여부를 조건으로 해서 보면, 앞의 예와는 전혀 다르게 실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西北에서는 그것이 보존되지 않으나, 六鎭을 포함한 東北은 이를 보존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東南, 西南 그리고 濟州方言까지도 포함된다.

이와같이, 방언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對立이나 對應의 조건이 꼭 같이 적용되지 않으며, 어떤 조건에서는 對立하나, 다른 조건에서는 對應하

1) 이밖에 특이한 방언적 현상을 보유하고 있는 함경북도 六鎭地方(회령, 은성, 새별, 은덕, 웅기등)의 방언을 이들과 구별하여 方言島와 같은 小方言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것까지도 포함시킨 것으로 본다.

김병제 : 「방언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기도 하므로 한두 가지의 조건만으로 方言區域을 나누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等語線을 그리어 그 원리에 따라서 方言圈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 앞에서 나눈 區分도 그렇게 해서 얻은 產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西北과 東北 그리고 六鎭方言이 자기 다른 방언들과 구별되는 音韻·形態論상의 특성을 몇가지 들어보기로 한다. 그것은 지금 북한의 국어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深層的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單母音 /ㄴ/, /ㄷ/의 有無

황해도를 제외한 西北, 東北 및 六鎭方言은 다같이 이것을 가지지 않으나, 부분적으로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가진다던가, 또는 각각 어떤 母音으로 對應시키는가 하는 세부의 현상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2) 重母音 /ㄴ/와 /ㄷ/의 有無

황해도를 제외한 西北, 六鎭方言에서는 /ㄴ/와 /ㄷ/가 쓰이나, 黃海道와 東北方言은 이들 重母音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단어내의 母音間에 끼어 있는 /ㄱ/과 /ㄴ/의 保存有無.

西北方言은 이것들이 보존되지 않으나, 東北方言은 이들을 보존하여 실현하고 있다.

(4) 主格接尾辭 ‘이/가’의 分布

東北方言은 ‘이/가’와 함께 이들의 重出形 ‘이가’를 쓰는데 반해, 西北方言은 母音으로 끝난 語根아래서 ‘가’대신 ‘래’가 쓰인다.

(5) 유독 東北과 六鎭方言은 對格接尾辭 ‘으/리’를 가진다.

(6) 過去時制를 표시하는 ‘ㅆ’이 西北과 六鎭方言에서는 ‘ㅅ’으로 나타난다.

이상 몇가지 構造的인 특징으로 보더라도 東北과 西北 그리고 六鎭사이에는 각각 그들을 구분하기에 충분한 指標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들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따라 경계가 나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건들은 서로 엇갈리거나 맞물려 그들 사이의 가깝고, 먼 관계를 복잡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方言의 形成이나 그 基層을 이루는 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할 문제다. 여기서는 다만 북한지역의 국어는 본시 歷史·地理적으로 특이한 方言의 性格을 基底에 깔고 있는 언어라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거를 나아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로서, 分斷後 북한당국이 그 地域語를 目的意圖적으로 屈折시키고, 變造하여 또다른 特殊方言을 造成하게 된 데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려 한다.

Ⅲ. 北韓의 言語觀과 文化語의 形成

북한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政治的 體制나 理念上 言語를 獨自의인 객관적 對象으로 인식하거나, 그것을 이루는 순수한 言語內的 原理를 受容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마르크스·레닌主義的 言語理論에 從屬해야 했고, 그리하여 언어는 社會的 現象의 하나라 했으며, 그 주된 機能은 通信機能으로서 思想傳達뿐만 아니라, 사상을 직접형성하거나 그 사상을 보존하는 기능, 즉 思想體現의 機能을 가진다고 했다. 따라서 언어는 현실의 意識, 사상의 형성, 보존, 전달 그리고 상호이해를 위한 통신적 기능에 쓰이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言語觀에 따라 言語, 즉 '조선어'는 '언어사회 성원의 중요한 교제의 수단일 뿐만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생활 전반에 관계하면서 혁명임무를 수행하며, 정치·경제·문화의 모든면에서 새로운 진보를 위한 건설사업에 적극 복무하는 수단', 또는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도구로서의 조선혁명수행의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발전과 투쟁의 무기로서 다듬고 손질'해야 하며, 결국 '革命的 武器'²⁾

2) 「조선로동당 지도부에 개화발달한 우리민족어」 과학원출판사, 1962, p. 16을 참조.

에 걸맞는 기능을 極大化하기 위한 言語革命을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면서, 국어의 언어적 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서울말을 중심으로 한 中部語에 기초하여 査定되고 통용되어 온 '標準語'로부터 離脫하여, 따로이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는 그들의 規範語를 조성하기에 이르는데, 그것이 이른바 '文化語'다.

그러므로, 文化語의 基層은 표면적으로는 국어의 西北方言이 된다 하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평양말'이란 傳統的으로 써내려 오는 평양지역의 自然言語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순수한 西北方言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동안 북한에서 非言語的인 理論과 實踐으로 추진해 온 言語變革事業을 통해 體制와 理念的인 規範化를 이루어 造成한 政治的 變種語를 뜻하는 말이다. 그것이 국어의 발달법칙에 따라 自律的으로 이루어진 말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와 같은 文化語의 形成은 결과적으로 國土와 民族의 分斷에 이어, 民族의 特質 가운데 더 이상은 갈라 놓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對象, 즉 言語의 分斷까지를 宣言的으로 決行하게 된 또하나의 民族的 悲劇이었다.

名分이야 어떻든 간에, 북한은 국어의 正統的인 標準語의 求心圈을 非言語的인 統制의 힘을 가지고 離脫하여, 별도로 다른 제2의 求心圈을 만들었고, 그것을 規範化하여 文化語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한 뜻에서 국어의 求心圈을 벗어난 것은 아니며(벗어날 수도 없다), 여전히 그 圈內에 머물러 모든 言語法則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만 일정한 조건의 간섭때문에 既往의 言語圈과는 상대적으로 遠心的인 獨自性을 가진다는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文化語形成에 관한 言語의 內的·外的 特性은 각 부문에 걸친 세부적 분석을 통해 밝혀야 할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앞서 前提되었던 文化語形成의 言語的 基盤은, 첫째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西北方言이 主軸이 되어, 여기에 東北方言을 包括하는 方言圈의 언어라는 특성과, 둘째로 이들 방언권의 언어라 하더라도 순수상태의 자연언어가 대상

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體制와 理念에 따라 철저하게 濾過되어 合目的으로 잘 정리되고 變身된 것만이 그 對象語가 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본조건은 단순히 국어의 한 地域語의 성격으로 규정되는 文化語形成에 적용될 뿐, 국어 자체와는 無關하다고 하여 消極적으로 보아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옳건 그르건,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文化語의 속뜻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深刻성이 있다.

북한이 그들의 정치적 硬直性이나 閉鎖性으로 보아 평양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어를 그들의 公用語로 삼고, 그것을 그들의 理念에 맞게 정리하는 일을 단행한 데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진 文化語를 '民族語의 典型'이라 하여 南北共通의 標準語로 해야 한다고 強辯하면서 既往의 '標準語'를 국어로 인정하지 않는 데까지 擴大適用하여, 跛行的으로 국어의 乖離·異質化를 深化시켜 가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이것은 결코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엄중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Ⅳ. 北韓의 국어연구와 언어학연구소

分斷後 비교적 일찍부터 북한은 국어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정부기관으로서 사회과학원내에 언어학연구소가 설치되며, 이 연구소는 언어정책의 立案이나 改革事業의 理論·實踐의인 推進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主體的인 言語規範을 확립하는 데는 강력한 統制機能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그 기능까지도 委任을 받게 되었다. 마침내는 文化語를 만들어 낸 일을 비롯하여 그동안 북한의 국어문제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은 그 모두가 이 언어학연구소의 主導아래서 그들 특유의 集體的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국어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려면 반드시 이 연구소에 대해 철저한 분석검토가 앞서야 한다. 그런데 북한문제를 다루려 할 때 가장 큰 장애는 資料가 없거나 혹은 遮斷되어 있어서 그것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데 있으며,

이 연구소를 알아 보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제약은 例外가 아니다. 앞으로 이 언어학연구소의 전모를 밝히는 객관적인 연구가 결국 북한의 국어문제를 원천적으로 이해하는 要諦가 될 것이 확실하니만큼,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의 克服이 절실하나 당장의 여건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 따를만큼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여기서는 극히 제한된 단편적 자료에서 확인하게 된 사실을 들어 보는 데 만족해야겠다.

1946년 7월에 북한에서는 당시의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의 후원을 받기는 했으나, 민간자유단체의 성격으로 '조선어문연구회'가 성립되며, 그것이 1947년 8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 175호에 의해 김일성대학 내에 설치되는 '조선어문연구회'의 母體가 되고, 이로써 '조선어문연구회'는 민간단체의 성격을 벗어나, 그 위원장에 신구현이 오른다. 그 때만 하더라도 정부형태를 갖추지 못했던 때였으며, 1948년 9월에 그들의 정권이 수립되고, 1948년 10월 2일에 이르러, 내각결정에 의거하여 교육성 안에 '조선어문연구회'를 두게 되는데 이 때 위원장은 리극로이며, 그렇게 되므로써 이 연구회는 정부차원의 연구기관으로 승격하여 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그후 1952년 10월에 내각결정으로 '과학원'이 생기고, 12월에 開院하면서 그때까지 교육성안에 있던 연구회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로 개편되었으며(1952년 12월 9일), 그후 1962년 연구소안에 '언어문학연구실'을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그 編制나 機能 그리고 그간의 연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우며, 1964년 2월 과학원이 '사회과학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언어문학연구소'도 '언어학 연구소'와 '문학 연구소'로 분리개편되고, 그 소장에 김병제가 오른다.

이와같이 겉으로 보면 여러번의 개편이 있는 듯하나, 그것은 外部의 상황변화에 밀려 일어난 일일 뿐이지 이 기구는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유지

운영되어 왔다.

이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과업의 주된 대상은 대체로 두가지 일로 集約되는데,

첫째는 국어를 그들의 체제와 이념에 따른 言語觀에 걸맞는 말이 되게 한다는 名分 아래서 각부문을 規範化하는 일이었고,

둘째는 당과 김일성의 언어정책이나 敎示를 理論·實踐的으로 뒷받침하여 合理化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初期의 어떤 때는 個人研究도 허용되어 그 연구보고도 있었지만, 차츰 그런 것은 지양되고, 이런 과업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연구보다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集體的으로 연구하는 방법의 일반화가 요구된다 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적 연구를排除하는 학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풍토를 조성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는 ‘조선어문연구회’ 때부터 機關誌를 발간하고 있다. 그것은 1949년에 創刊된 「조선어연구」를 비롯하여 오늘날의 「문화어학습」에 이르는 것들이며, 그 내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연구」: 1949년 3월에 創刊한 ‘조선어문연구회’ 발행의 月刊誌다. 이 잡지의 성격은 金料奉을 위시하여 李克魯, 田蒙秀, 류창선, 김정선, 洪起文, 金壽卿, 金炳濟등이 주축이 되고 있었으나, 종래의 전통적인 학풍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며, 발표논문도 訓民正音時代의 音韻, 文法에 관한 것과 訓詁學的인 註釋物등, 당시 서울의 학풍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주로 金壽卿이 번역한 ‘엔·야·마르’의 ‘新言語理論’에 대한 蘇聯學者들의 논문을 여러편 실고 있는 것과 ‘朝鮮語綴字法의基礎’라는 題目으로 ‘한글맞춤법통일안’과 맞서는 ‘조선어 신철자법’에 대한 해설을 連載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그들의 進路를 示唆하는 바가 컸다.

「조선어문」: 1956년에 창간한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간행의 隔月刊誌

다. 1956년 1호에서부터 1960년 6호까지 累計 30호를 발행하였으며, 어학과 문학논문을 함께 묶은 學術誌였으나, 이것이 다음해부터는 폐간되고, 어학과 문학이 따로 나뉘어 「조선어학」과 「문학연구」로 改題되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로부터 25년이 지난 1986년에 「조선어문」(부기간 4×6배판, 48페이지)을 다시 내보낸다고 했는데,³⁾ 그 緣由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말과 글」: 1958년에 창간한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간행의 月刊誌로서, 이것은 전문적인 연구논문을 실은 學術誌가 아니라, 국어문제를 다룬 통속적인 대중잡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우리말의 인민성, 문화성’을 높이 기 위한 ‘언어정화와 문풍을 바로 잡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한때는 「조선어문」과 나란히 나오다가 이어 「조선어학」과 나란히 나오게 된다. 주로 이 잡지가 힘을 기울였던 일들은, 1) 근로자들의 언어실천에서 제기되는 언어정화문제, 2) 출판물의 언어를 바로 잡아 주는 문제, 3) 언어문화유산의 널리 소개, 일반화하는 문제, 4) 일반언어이론을 해설하는 문제들이었다.

「조선어학」: 1961년에 창간한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간행의 隔月刊誌다. 이것은 「조선어문」에서 언어분야만을 따로 떼어 分本한 성격의 것이므로 사실상으로는 계속적인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것은 1966년에 다시 「어문연구」로 改題되면서 병합되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어문연구」: 1966년부터 「조선어학」과 「문학연구」를 合本하여 改稱한 것으로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문학연구소에서 季刊으로 낸 機關誌다. 이 「어문연구」는 1967년 4호까지만 발행되는데 그 累計號數가 제 53호로 되어 있어, 그것이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로 이어지는 기관지로서 「조선어문」과 「조선어학」, 그리고 「어문연구」로 連繫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말과 글」과는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려 준다.

3) 「문화어학습」 1986년 1호(추제 144호) p. 64 ‘알려드립니다’欄을 참조.

「문화어학습」: 1968년 6월 25일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기관지로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창간한 季刊誌다. 그후 지금까지 계속간행되고 있어 위에서 보아온 것들에 비하면 의외라고 할만큼 장수하고 있는 잡지다. 거기에는 그럴 이유가 있을 것이니, 소위 김일성의 1.3敎示나 5.14敎示가 나오기까지, 다시말해서 ‘文化語’를 만들어 세우기 이전과 만들어 세운 이후의 달라진 情況이 잘 나타난 반증의 한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이 잡지는 문화어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당면문제들의 해결에 있어 대중을 사상적으로 동원하고 사회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때문에 창간되었던 것이다.⁴⁾

V. 文化語의 諸規範

1. 맞춤법

국어의 맞춤법은 일부의 改訂은 있었으나, 1933년에 朝鮮語學會가 제정하여 시행한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淵源을 두고 있다. 그것은 南·北韓이 모두 같다. 그러나 남북의 분단은 국어분야에도 심각한 분열현상이 일어났으니, 특히 북한에서는 所謂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言語觀을 표방한 언어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므로써, 전통적인 국어인식의 기반으로부터 급격히 離脫해 갔다. 그와같은 변화는 맞춤법분야에 있어서도 例外일 수 없었다.

북한의 맞춤법은 1954년 9월에 ‘조선철자법’으로 공포되며, 그것은 1966년 7월에 ‘조선말규범집’으로 개정공포되었다고 한다.⁵⁾ 그 뒤는 띄어쓰기 부분에 일부의 수정이 있었을 뿐, 그 골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철자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4) “「문화어 학습」첫호를 내면서”, 「문화어학습」, 1968년 창간호, p.48을 보라.

5) 김민수: 「北韓의 國語研究」, 高大出版部, 1985, pp.82~91.

그러나, 북한의 철자법에 대한 논의는 첫번째 개정안이 공포되었다는 1954년 이전부터 활발하게 전개된다. 뿐만아니라, 그 논의는 단순히 개정의 필요성이나 그에 대한 의욕의 표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맞서는 구체적인 代案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미 1954년 이전에 전개된 논란은 북한의 철자법의 기본 원리가 定立되고, 그 체계가 구성되는 胎動이었다는 점에서 자세히 살펴 봐야 할 이유가 있다.

(가) 조선어문연구회의 ‘조선어 신철자법’

북한에서는 1954년의 ‘조선어 철자법’ 보다 훨씬 앞서는 1948년에 조선어문연구회가 제정한 ‘조선어 신철자법’을 이미 발표하였다.⁶⁾

1947년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조직된 조선어문연구회는 그 시기의 당면한 과업의 하나로 漢字廢止와 文字改革을 전제로 하는 철자법의 새로운 제정을 내세웠는데, 그들은 ‘주시경선생의 사상속에 배태되고 조선어학회에 의하여 계승된 철자법상의 형태주의 원칙을 더한층 발전시킬 것이 요구’ 되었으며, 이 요구에 부합하는 ‘김두봉선생의 문법 내지 철자법상의 새로운 견해’를 토대로 하여 ‘조선어 신철자법’을 발표한다 했다.⁷⁾

결국, 이 ‘조선어 신철자법’은 김두봉이 종래에 주장해 오던 문법과 철자법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당시 북한에서 김두봉이 어떠한 權座에 있었는지를 알면 그것은 당연한 추세일 뿐, 전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없거니와, 그 뒤 1958년 그가 숙청되고 문자개혁안이 폐기되어 버리는 큰 변화를 겪지만, 역시 북한 철자법의 근간이 되었던 바탕은 이 ‘조선어 신철자법’이기 때문에 그 기본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이에 대한 省察이 필요하다.

‘朝鮮語綴字法の 基礎’의 ‘제 1부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원칙’에서 철자

6) 「조선어 연구」, 제 1권 5호. 1949, p.154 참조.

7) 「조선어 연구」, 제 1권 5호. ‘朝鮮語綴字法の 基礎’, 1949, p.154.

법에는 표음주의, 형태주의 및 역사주의의 세 원칙이 있다면서 그 長短點을 비판하고, 그 가운데 형태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주시경의 언어이론은 '조선어의 형태론적 구조와 어음조직에 대한 깊은 성찰, 언어 내지 문자의 본질에 대한 투철한 이해, 그리고 과감한 개혁적 정신'을 가진 것이라 평가하였다. 한편 그것을 계승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한층 발전시킨 문법 내지는 철자법이 김두봉의 새로운 견해라는 것이고, 그 견해를 토대로 한 것이 '조선어 신철자법'이라 하였다. 그리면서 朝鮮語學會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첫째로, 그것은 철자법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원칙적으로 형태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선적으로 표음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같이 생각하고 있으며(총론중 제1편), 또한 형태주의가 마치 어원주의인것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제3장, 제6장을 '어원 표시'라고 명명하고 있는 사실).

둘째로 기본원칙이 형태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조항에서 표음주의에 빠져 버렸다고 한다. 즉, 漢字音의 표기에 있어 頭音 'ㄷ, ㄴ'의 처리를 표음주의에 빠져 잘못 규정하였으니, 漢字는 한자한자가 形態部를 이름으로 語中, 語末에서 'ㄷ, ㄴ'음이 나면 이를 표기의 단위로 삼아 그 形態部를 어중이나, 어말에서와 같이 語頭에서도 고정적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語頭에 오는 경우는 語中, 語末에 오는 경우와 차별하여 규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고, 用言의 표기에 있어 언어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다한 변격용언을 규정하였으니, 이것은 국어의 형태적 구조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언어에 있어서의 형태론과 어음론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여 국어어문운동이 처한 역사적 단계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여 민족어가 이미 완전히 통일되고 철자법이 고정된 외국의 경우에 맹종하여 외국에서는 근래 자모수를 증가시킨 일이 없다는 이유밑에 자모 24자에 만족한 까닭으로 그 곳에는 아무런 전진의 전망과 발전도 예견되지 않고 있다⁸⁾하여, 新字母 6字의 제정을 강하게 暗示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런 결합을 매끈 ‘조선어 신철자법’은 형태론과 어음론과의 상호연관성, 성음의 면에 대하여 의미의 면이 가지는 우위성들을 옮겨 인식하고 형태주의원칙을 일관하여 채택하였다면서, 총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조선어 철자법은 현대 조선인민의 언어의식가운데에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일정한 형태로 표기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2. 조선어철자법은 그 표기에 있어 일반어음학적 원리에 의거하되, 조선어에 고유의 발음상의 제규칙을 존중한다.

이로써, 문자표기에 있어서의 표의성과 표음성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그 결과 漢字語 표기에 있어(頭音 ‘ㄹ, ㄴ’의 표기), 합성어의 표기에 있어(분리부 ‘,’의 사용), 용언활용에 있어(新文字의 추가) 적지 않은 변동을 겪어야 하는 것이 이 철자법의 개정이라고 했다.

‘조선어 신철자법’의 주요규정

‘조선어 신철자법’과 현행 ‘조선말 규범집’의 맞춤법은 물론 다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맞서서 별도의 맞춤법을 제정한 原理나, 현재까지도 고수되어 남북어 사이의 異質感을 빚고 있는 規定들은 이미 이 ‘조선어 신철자법’에 潛在되어 있었으며, 결국 그것은 ‘조선어 신철자법’의 특성인 동시에 북한 맞춤법의 특성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조항으로 다음의 네가지 규정을 지적할 수 있다.

(1) 첫소리(頭音)의 표기

漢字語의 표기에 있어 :

(ㄱ) 語中, 語末에서 ‘냐, 너, 뇨, 뉴, 니’로 발음되는 것은 비록 첫소리에서는 ‘야, 여, 요, 유, 이’로 발음되더라도 그 형태를 교정시키기 위하여 어디서나 ‘냐, 너, 뇨, 뉴, 니’로 적는다.

ㄴ) 語中, 語末에서 ‘라, 랴, 려, 로, 료, 루, 류, 르, 리, 래, 레, 뢰’

8) ‘朝鮮語 綴字法の 基礎’, 「조선어연구」 제 1 권 5 호. 1949, pp. 143~153.

로 발음되는 것은 비록 말머리에서는 ‘나, 야, 여, 노, 요, 누, 유, 느, 이, 내, 예, 뇌’로 발음되더라도 그 형태부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어디서나 ‘라, 띠, 러, 로, 료, 루, 류, 르, 리, 래, 레, 뢰’로 적는다.”

(2) 여러 형태부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구성할 경우, 형태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시키면서도 두 형태부 사이에 일어나는 특수한 어음현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분리부 ‘표’를 둔다.

ㄱ) 두 형태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同化防止 악센트현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두번째 형태부의 두음을 된소리로 내는 경우: 고’집, 기’발, 나’무, 군, 물’득, 움’집, 이’뭉, 콩’가루, 날’짐승, 물’것, 가’법(加法), 리’과(理科), 한’자(漢字).

ㄴ) 두번째 형태부의 두음이 ‘야, 여, 요, 유, 이’인 때 악센트 현상과 함께 구개음화한 ‘ㄴ’, ‘ㄹ’소리가 나타나는 경우: 갓’양, 점’이불, 낫’요강, 물’약, 부엌’엿, 편’웃¹⁰⁾

(3) 用言의 어간과 토가 결합할 때에 나타나는 音韻交替에 있어 어간자음을 언제나 같은 받침으로 표기하므로써 形態部의 표기를 하나의 형태로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왕의 자모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新字를 추가제정해야 한다.¹¹⁾ 즉, ‘ㄲ, △, ㄷ,

9)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2)’, 「조선어 연구」 제 1 권 6 호. 1949, pp. 72~73.

10)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2)’, 「조선어 연구」 제 1 권 6 호. pp. 78~81.

11)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3)’, 「조선어 연구」 제 1 권 7 호. pp. 89~106 참조.

「조선어 신철자법」은 用言의 活用에 있어 나타나는 語幹子音의 音韻交替現象을 26 類型으로 나누어 각각 그 표기법을 규정하였는데,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적용된 원칙은 어떠한 어형변화에 있어서나 用言의 形態部는 언제나 일정하게 고정된 것이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既往의 字母만으로는 표기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새 글자를 만들어 쓴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새 글자로 나타내고 있는 交替類型만을 들어 두기로 한다.

i) 교체 [ㅈ]—[ㅊ]→표기 ㅈ

ii) 교체 [ㄷ]—[ㄸ]→표기 △

iii) 교체 [ㄴ]—[ㄹ]→표기 ㄴ

iv) 교체 [ㄹ]—[ㄴ]→표기 ㄹ

이것들은 이른바 變格用言이라는 것들이며, 이들에게 있어서 활용의 모든 경

ㅁ...' 등.

(4) 어간과 토의 결합에 있어 母音토를 요구하는 경우: 이때 요구되는 모음토 '아, 어, 여'의 표기에는 첫번째 형태부 어근의 끝음절의 모음이 'ㅣ, ㅏ, ㅑ, ㅓ, ㅕ, ㅗ, ㅛ, (하)'이면 '여, 었'으로 적는다.

이것들만 보아서도 '조선어 신철자법'이 얼마나 형태주의에 철저하려 했던가를 알 수 있거니와, 아무튼 '조선어 신철자법'의 특성은 오로지 형태주의 표기원칙을 충실하게 고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주의 표기원칙은 그 후의 개정안에서도 기본원칙의 命脈이 되어 계승되는데, 위의 네가지 규정중 1, 2, 4 항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다만 3의 文字改革案은 끝내 採擇이 留保되었다가 마침내는 金料奉의 숙청과 함께 辛辣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埋沒되고 만다.

(나) 조선어 철자법(1954. 9.)¹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

'조선어 철자법'은 '머리말'에서 '현행 조선어 철자법에 부분적인 동요가 존재하여 광범한 사회층에서 조선어 철자법의 통일에 대한 요망이 절실함을 인정'하여 1954년초,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에서 '조선어 철자법' 초안을 작성, 토의 검토를 거쳐 9월에 이를 발간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어 철자법'은 형태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삼는다 했고,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적지 않은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는 것과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장래에 조선문자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므로써 조선어 철자법도 더욱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정된 어간표기를 하여 形態主義原則을 지키기가 어려워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는 표음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하므로써 형태주의 원칙은 고수된다 하겠지만 과연 이들에게 音素文字의 實質을 부여할 수 있을지, 또다른 문제가 제기되며 이 부분은 그들 사이에서도 심한 논란과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문제는 좌초되었던 것이다.

12) 「조선어 철자법」,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 1954. 9. 이 자료는 「亞細亞研究」 제 48 호 <資料> pp. 19~33의 것이다.

이로써, ‘조선어 철자법’이 나오게 되는 배경과 성격, 그리고 극복해내지 못한 限界性등이 잘 나타나 있거니와, 가장 큰 難題는 역시 文字改革論의 갈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형태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문자개혁론은 ‘조선어 신철자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提案하여 끈질기게 주장하여 왔지만 ‘조선어 철자법’의 단계에서도 그것을 단행하는 데는 실패하며, 그러나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 留保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기필코 달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앞시기의 ‘조선어 신철자법’에서 특징조항으로 지적한 (3)의 新字는 여기에서 채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의 북한맞춤법이 당면했던 難題는 물론 이 문자개혁안을 놓고 전개된 論爭이라 하겠다.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나, 결국 1958년의 김두봉의 숙청과 1964년에 있는 김일성의 1.3敎示에 의해 완전히 폐기되므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되어, 다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 ‘조선어 철자법’의 총칙은 일부의 표현을 바꿨을 뿐, ‘조선어 신철자법’을 그대로 따랐으며, 형태주의 원칙을 표방하면서도 국어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일부 表音主義를 受容해야만 하는 모순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잘못을 비판했던 바로 그 문제점을 스스로 되풀이 함으로써 自家撞着에 빠져 들고 말았다. 결국 ‘조선어 신철자법’이나 ‘조선어 철자법’의 총칙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원칙규정을 답습하여 더 나아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사이에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일부 세부조항의 규정일 뿐이다. 이미 앞에서 ‘조선어 신철자법’을 특징짓는 네가지 조항을 지적했는데 ‘조선어 철자법’은 그중 (1), (2), (4)의 규정은 고수하지만 (3)의 규정은 수용하지 않는다. 즉, (1)은 본음이 ‘녀, 뇨, 뉴, 니’인 漢字語는 語頭에서도 본음대로 적는다(제2장, 제5항)와, 본음이 ‘ㄹ’로 시작되는 漢字語는 語頭에서도 본음대로 적는다(제2장, 제6항)로, (2)는 합성어 구성에 있어 그 중간에 ‘사이표’ (,) ¹⁹⁾를 둔다(제3장, 제19항)로 나타난다. 그리고 (4)는 ‘어간이

‘아, 어, 여, ’ 또는 ‘앗, 엇, 옇’과 어우를 적에는 어간의 모음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라 적는다’(제2장 제13항)에서 ‘3) ‘ㄹ, ㄴ, ㄷ, ㄱ, ㄴ, ㄷ, ㄱ’인 경우 및 어간의 끝소리가 ‘하’인 경우: ‘여, 옇’으로 적는다고 했다.

한편 (3)은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조선어 신철자법’의 新字案에 對應하고 있다. 어간과 토가 어우를 적에 토의 성질에 따라 어간의 끝소리가 여러가지로 바뀌어 돌리고, 오늘날 쓰이는 조선어 자모로서는 그 어간의 형태를 고정시킬 수 없거나 또는 재래의 표기법상의 관습이 굳어져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제1장 제4항)고 전제하면서 각항의 구체적 표기법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다) 조선말 규범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6.

‘조선어 철자법’이 과학원에서 성안공포한 것인데 반하여, 이 규범집은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공포한 것으로, 전자가 철자법이라는 표제아래, 철자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편제를 이 규범집은 각각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을 따로 설정하여 4부로 나누고 있다. 이 규범집이 공포되는 1966년 6월은 그 배경으로 보아 우연한 시기가 아니다. 그것은 비단 言語分野에 한해서 일어난 變革만은 아니었지만, 1958년 김두봉숙청과 1964년의 김일성의 1.3敎示, 그리고 1966년의 5.14敎示로 이어지는 일련의 ‘언어분야에 있어 主體를 살려 나갈 때 대한’ 조치가 있는 직후의 일이고 보면 가히 그것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만하다. 그것은 곧 이제까지 개혁과 갈등의 와중에서도 할 수 없이 유지해 온 ‘標準語’의 전통으로부터 離脫하여 獨自의인 ‘文化語’를 따로 만들어 세우는 일이었다.¹⁴⁾ 따라서

13) ‘조선어 신철자법’에서는 이것을 ‘분리부’표라 했다.

14) 필자는 북한의 국어문제를 言語觀이나 政策의 事件의인 過程으로 볼 때, 이時期를 前後하여, ‘표준어시기’와 ‘문화어시기’로 확연히 구분할 것을 제안

언어문제 전반에 걸쳐 그들이 내세우려는 특성에 맞는 새 모습을 갖추어야 했고, 그러한 整備事業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조선말 규범집’이라 하겠다.

‘맞춤법’의 총칙은 ‘조선어 철자법’의 그것을 縮少整理하여 形態主義原則만을 표방하는 것으로 單一化하였다. 총칙만이 아니라 규범집의 ‘맞춤법’은 전반적으로 모든 조항의 규정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 이미 앞에서 북한의 철자법이 ‘한글맞춤법통일안’과 크게 다른 4개조항을 중점적으로 살폈거니와, 여기서도 역시 그것들이 이 ‘맞춤법’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주목해 보기로 한다.

(1)의 조항은 ‘한자어의 적기’에서 ‘한자어는 음절마다 한자의 현대소리에 따라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 7 장, 제 26 항)로 규정함으로써 ‘조선어 신철자법’ 이래 語頭の ‘너, 뇨, 뉴, 니’와 ‘르’를 본음대로 적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

(2)에 해당하는 항은 ‘종전에 써오던 사이표(’)는 발음교육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앤다’(제 4 장, 제 18 항)고 하였다. 이로써 ‘신철자법’에서 ‘분리부’라 했고 ‘철자법’에서 사이표 라고 하여 합성어구성에 쓰인 (’)표를 폐지하게 되었다.

(3)에 해당하는 항은 ‘신철자법’에서 새자모를 만드는 案으로 제기 됐으나, ‘철자법’은 그것을 留保했던 것인데, ‘맞춤에’ ‘이르러 완전히 폐기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되었다. ‘일부 용언에서 어간과 토가 어울릴 적에 어간의 끝소리가 일정하게 바뀌여지는 것은 바뀐대로 적는다’(제 3 장 제 10 항).

(4)에 해당하는 조항은 ‘어간의 ‘아, 어, 여’ 또는 ‘았, 었, 었’과 어울릴 적에는 그 어간의 모음의 성질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적

했다.

李承旭: ‘北韓의 文化語에 대한 연구」『東亞研究』제 18 집, 西江大 東亞研究所. 1989.

는다'는 규정아래서 '어간의 모음이 'ㄷ, ㅌ, ㄷ, ㅌ, ㅌ'인 경우와 어간이 '하'인 경우에는 '여, 었'으로 적는다(제2장, 제11항, 3))고 하여 고수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일찍이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크게 다르게 표기해 오던 4개 조항중 (1)과 (4)만이 살아 있을 뿐이고, (2)와 (3)은 통일안의 原案에 돌아가고 말았다.

2. 文 法

문법의 規範化를 주도한 原則

북한은 그들 특유의 言語觀에 따라 言語政策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는데, 언어의 여러 부문가운데서도 특히 그들이 강조하는 目的意識의인 언어기능의 직접 대상이 되었던 것은 문법과 語彙부문의 규범화문제였다. 그리하여, 북한의 언어연구에서 문법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지켜 왔으며 '조선어 신철자법'과 같은 系에서 이루어진 '조선어문법'이 1949년에 '김' 일성대학 조선어문연구회'의 간행으로 나온 이후 1979년의 '조선문화어 문법'이 이루어지기까지, 결국 평양말을 기준으로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文化語文法의 규범화를 위한 연구가 그 主流였다. 이와같은 문화어문법의 규범은 '주체적 언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 그 요구를 관철하는 것을 첫째가는 작성원칙'으로 하여 '언어구조를 분석정리하되 언어구조를 언어사용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취급하고 언어적 구성요소들의 실현 규칙도 언어사용의 견지에 서서 밝히는 입장'¹⁵⁾을 취하여 기술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종래의 규범문법들이 언어구조와 언어사용을 따로 떼어 놓고 언어구조 그 자체만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체계화하는 데에만 치중되었다는 비판을 前提로 했으며 이와같은 연구방법을 '언어구조만능주의', '언어체계중심주의' 라하여 비난하

15) 「조선문화어문법규범」 학우서방(日本東京) 번각발행, 1977. pp.5~6을 참조.

면서 문화어문법의 규범은 이것을 완전히 극복함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구조분석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문법적 현상들이 잘 정리된 이 규범은 사람들의 올바른 언어사용과 언어의 목적의식적인 발전을 위하여 더 잘 이바지할 수 있게 짜여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법연구나, 그 체제도 적지않은 변화를 겪었다. 그 하나하나를 追跡하면서 정밀하게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문화어문법규범으로 이어지는 일이었던 사실에 따라 여기서는 ‘조선문화어문법’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들의 傳統文法과 크게 차이나는 특징적인 몇 가지 항목만을 살피기로 한다.

‘조선문화어문법’의 특성

‘조선문화어문법’은 1979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간행의 문법서인데, 무슨 이유인지 저자 혹은 편자를 밝히지 않았다. 이 문법서는 ‘머리말’에서 문법구조의 연구서술은 주체사상의 요구에 입각하여 ‘문화어가 혁명과 건설에 최대한 잘 복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문법구조를 자료, 언어 실천, 언어이론의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잘 해설’할 것을 임무로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문법은 말과 글을 이루는 데 장용하는 規則의 總體이며, 이러한 규칙적인 구조를 文法構造라 定義하고, 문법구조의 연구서술은 그것이 직접반영되어 있는 단어와 문장이 대상이 되겠지만, 音聲·音韻에 대해서도 문법구조의 연구와 설명에 있어 기초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앞세울 필요가 있다하여 語音論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법구조의 중심적인 측면은 역시 形態論과 文章論의 두개부분이며 형태론은 단어에서 나타나는 文法構造를 포괄하는 만큼 단어의 짜임, 품사, 단어의 형태변화 등을 대상으로 하고, 문장론은 단어의 어울림, 문장의 종류, 문장성분, 문장의 전일적인 짜임등을 살핀다고 했다. 그런데 품사는 단어의 형태적 특성만이 아니라 문장론적 기능에도 깊이 관련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형태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하여 따로 品詞論을 두는 주장이 있

으나, 形態論의 연구범위를 단지 단어의 형태 뿐만아니라, 단어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법구조의 연구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품사는 결국 단어에 대한 문법구조의 문제가 되니만큼 형태론의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文法的 編制를 語音論, 形態論, 文章論으로 구성하였다.

(가) 語音論

어음론이란 音韻(音素)論에 대응하며, 어음 즉 말소리는 音韻(音素)에 상당하는 것으로, '어음론은 우리말 발음에 나타나는 말소리현상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으면서, 우리말 말소리현상들의 특성과 그 현상들속에 작용하는 규칙과 법칙들 그리고 발음실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연구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주로 音韻의 體系와 그 構成 그리고 結合的 變化등을 서술하던 종래의 방법에서 벗어나, (1) 말소리의 발음, (2) 소리마디의 발음과 형태부의 소리구성, (3) 단어의 발음, (4) 문장의 발음으로 묶여지는 체계로 서술함으로써 우리말 발음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언어실천에 유용하게 한다는 것이다.¹⁶⁾

이 音聲·音韻篇에 해당하는 語音論은 그 분량이 154면이나 되며, 서술체계와 방법에서 말하고 있듯이 音韻體系나 音韻變化的 規則을 기술하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단어나 문장의 발음현상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특성을 規範化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 形態論

형태론은 단어의 문법구조를 다루는 분야로서, 단어의 짜임, 단어의 품사적 특성, 단어의 문법적 형태들에 대하여 고찰하는, 즉 單語論과 品詞論을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어는 '일정한 말소리에 싸인 뜻의 덩어리로서 문장을 짜는 데 쓰이는 언어의 기초적 단위'¹⁷⁾라 定義했다. 다시말해서 形態·意味·統辭의 세 측면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단어는 단어들로 이루어

16) 「조선문화어문법」,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p.14 참조.

17) 「조선문화어문법」,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9. p.169를 참조.

진 成句나 단어들의 군은 맞물림 등과는 구별되며 또한 形態部와도 구별된다고 하였는데, 形態部라는 것은 대체로 形態素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형태·의미의 단위이지만 그것이 단어를 이루기 위하여 단어안에 들어가 있는 단위일 뿐, 구문상의 단위는 아닌, 단어와는 질서를 달리하는 단어내부의 단위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단어조성에 관여하는 形態部를 語根과 接辭로 분석기술하는 것은 우리와 다를바 없으나, '토'의 範疇設定에 있어서는 북한의 문법체계를 특징짓는 매우 破格的인 基準에 의해 이루어졌다.

文法的 形態와 토의 概念

接辭가 造語法에서 하는 특성은 단어의 語彙的인 意味와 함께 文法的인 의미를 나타내는 데 관여하는 形態部라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토는 전적으로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形態部라는 점에서 다른 形態部와 구별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토는 단어의 변화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단어의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는 것만을 기본적인 직능으로 할 뿐이다. 이와같은 토의 특성으로 하여 단어를 이루고 있는 內部構造는 크게 토와 토가 아닌 부분으로 분석되며, 이때 토가 아닌 부분을 '말줄기'라 하여 대체로 語幹의 개념에 상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단어를 변화시켜서 문법적인 문법적 형태를 이룩하는 것이 토라고 규정하므로써 그것에 先行하는 語幹의 品詞論的 특성이라든가, 변화의 형태론적인 특성과 같은 특수한 범주적 질서는 완전히 排除될 뿐만 아니라, 토자체의 문법적 의미도 매우 추상적인 개념의 범주로 묶어 同值的으로 劃一化시키고 있는 점이다. 그리하여 體言의 曲用接尾辭인 助詞와 用言의 活用語尾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결국 체언과 조사의 결합도 문법적인 형태변화, 즉 屈折로 기술하여, 단어의 문법적 형태¹⁸⁾ 안에서 관계적인 의미, 즉 문법적인 의미를 나

18) 단어의 문법적 형태란 '단어가 문장속에서 이러저러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취하는 형태로서 문법적인 뜻과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수법과의 통

타내주는 部位의 형태소를 일괄하여 토라고 총칭한다. 따라서, 북한문법에 있어 형태론을 이루는 主軸은 토의 문제이며, 가히 토의 文法이라 할 만큼 質이나 量에서 토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⁹⁾

토의 構造文法的 特性

첫째로 토는 구조결합적 측면에서 前後하는 형태부들과의 결합에서 상대적인 자립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상대적 자립성은 토와 말줄기가 分離性이 있다는 특성이다. 둘째는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토는, 1)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의 문법적 의미를 가지지만, 한편으로 文法的 多樣性을 가진다는 것과, 2)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에 있어서 그것이 붙어 있는 단어와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속에서 쓰이고 있는 일련의 다른 단어와 형태들과도 관계를 가지면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문법적 다의성의 문제에서, 가령 조격토 ‘로’는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도구의 지표를 기본의미로 하고 그밖의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인데 이와같은 기술은 문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문법의 취약점으로서, 토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일련의 토의 多樣性 是非는 반드시 克服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토의 分類

語尾가 分布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는 文末 또는 語末의 語尾를 ‘자리 형태’라 하고, 先語末語尾를 ‘끼움형태’라 하였다. 그리고 助詞에 해당하는 것을 ‘채언토’라 하여 그 아래에 격토(格助詞), 도움토(補助詞), 그리고 복수토를 별도로 두는 한편, 活用語尾를 ‘용언토’라 하여, 그 下位分類로 맺음토(終結語尾), 이음토(連結語尾), 꾸밈토(副詞形語尾), 엮음토(冠詞形語尾), 존경토(敬語法先語末語尾), 시간토(時制法先語末語尾), 상

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결국 그것은 ‘語幹+語尾’ 構成을 이룬 단어의 語形을 뜻한다. 「조선문화어문법」,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9. p.217 참조.

19) 형태론의 총면수가 172面인 가운데 ‘토’에 대한 부분이 123面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뒷받침한다.

토(相表示先語末語尾)를 두었다. 그리고, 체언토, 용언토와 같은 層位에다가 轉成語尾, 즉 ‘바꿈토’라는 것을 두고, 그것을 다시 구분하여 ‘체언의 용언형’과 ‘용언의 체언형’을 두었다.

북한문법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토의 형태론적인 분석이나 기술은 결국 助詞까지를 語尾範疇안에 포괄함으로써 모든 變化語의 형태론적인 構造體系를 一元的 原理에 따라 파악하는 방법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 기본 원리는 구조론에 입각한 分布主義的인 방법에 따라 형태론적인 규칙을 객관화하는 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말단의 문제에서는 우리문법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구체적인 체계의 골격은 다를 것이 없다.

(다) 文章論

문장론은 構文論, 統辭論에 상당하는 문법연구의 二大分課중의 하나로서, 문장의 문법구조를 그 대상으로 한다. 문장이란 話者가 어떤 사상내용을 실제로 표현하며 전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갖추어진 최소의 단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단어나 단어들의 결합과 문장은 구별된다. 문장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표식은 문장의 ‘풀이성’(敘述性)이며, 이 풀이성을 표현하는 수단은, 1) 문장이 일정한 전달적 어조를 가지는 일이며, 2) 문장에다가 풀이성을 준다는 것은 표현하려는 어떤 내용을 현실에 귀착시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태적인 관계, 범범주적 관계, 시간범주적인 관계, 존경범주적인 관계등의 관계적인 의미가 반드시 주어져야 하므로, 일련의 관계적 의미를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문장의 類型的 分類

문장의 類型은, 1) 이야기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의 갈래(種類), 2) 짜임의 특성에 따르는 문장의 갈래, 3) 상에 따르는 문장의 갈래로 보고 있는데, 1)은 범범주가 배경이 된 문법적인 문장의 종류로서, 알림문장(敘述文), 물음문장(疑問文), 추김문장(勸誘文), 시킴문장(命令文)등으로 분류되고, 2)의 갈래에는, i) 세움말과 풀이말의 구성관계를 보아 ‘두구성

문'과 '외구성문'으로 나누는 것, ii) '단순문'과 '확대문', iii) '완전문'과 '불완전문', iv) '단일문'과 '복합문' 등이 여기에 속하며, 3)에는 '제힘상문장'(能動文), '입음상문장'(被動文), '시킴상문장'(使動文)등이 있게 된다.

단어결합의 특성.

특수한 문장은 하나의 단어로도 이루어지지만, 보통은 두개이상의 단어들로 이루어진다. 이때 두개 이상의 단어들은 일정하게 결합하며, 그 결합은 역시 일정한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이 수단에 대해 '조선문화어문법'은, 첫째 단어결합의 기본수단은 토이고, 둘째 특수한 단어(대로, 김에, 바람에, 곁함께, 뿐만아니라...)가 쓰이며, 셋째 구성하는 순서, 그리고 넷째 語調라고 했다.

한편 문장에서 단어들을 결합하는 수법으로는, 1) 맞물림법(對照法), 2) 이음법(接續法), 3) 잇대법(連續法)이 있다 하고, 1)에는 다시 i) 세움맞물림(敘述의 對照), ii) 보탬맞물림(補語對照), iii) 들임맞물림(引用對照), iv) 엮음맞물림(修飾對照), v) 꾸밈맞물림(限定對照)이 있으며, 2)에는 i) 벌린이음(並列的 接續)과 ii) 딸린이음(從屬的 接續)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결합체계의 분석은 종래의 것을 많은 부분에서 修訂改編한 것이다. 종래의 문법에서는 단어가 문장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문법적으로 어울리는 관계를 '단어연결'이라 하였고, 이것의 구조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 문장론의 중요한 측면이 되며, 그것에는 자기 다른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結合'과 '接續'이 있다 했다. 그리고, 이 '結合'과 '接續'에는 독자적인 몇개의 類型들을 따로 가진다 하여, '결합'의 유형은, i) 서술적 결합, ii) 규정적 결합, iii) 객체적 결합, iv) 관련적 결합으로 나누었고, '접속'의 유형은, i) 병렬적 접속, ii) 종속적 접속으로 나누는 체계였다.²⁰⁾

20) 「조선어 문법」 문장론 2,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과학원출판사. 1963, pp. 34~80을 참조.

文章成分

문장론의 중심대상은 문장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단위, 즉 문장을 이루는 직접적인 골격이 되는 단위인 문장성분이다. 이 문장성분은 한 단어나 또는 두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한 것이 단위로 되어 이루어지며, 하나의 문장은 이러한 문장성분들의 統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문장성분에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맞물려 있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단순히 잇대어져서 孤立해 있는 것도 있다. 맞물리는 것에는 1) 세움말(主語), 2) 풀이말(叙述語), 3) 보탬말(補語)²¹⁾, 4) 엮음말(冠形語), 5) 꾸밈말(副詞語)들이 있고, 이 가운데 1), 2), 3)을 主成分으로, 4), 5)의 것을 副成分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比重의 성분으로 본다는 것이다.

한편, 외판성분(孤立成分)은 그 下位分類로, 1) 부름말(呼稱語), 2) 끼움말(插入語), 3) 느낌말(感動語), 4) 이음말(接續語), 5) 보임말(提示語) 등을 두고 있다.

문장의 成分論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는 전통문법의 이론이나 방법과 다른 점이 없지 않으나, 크게 본 틀에서는 그 過程이나 歸結이 다르지 않다.

複合文

단일문이 문장론의 기본단위이기는 하지만, '조선문화어문법'의 문장론은 대부분을 단일문 기술에 치중했으며, 복합문에 대해서는 6장에서 간략하게 서술되어졌다.²²⁾ 따라서 그 내용도, 1) 복합문의 개념, 2) 복합문의 갈래, 3) 복합문의 쓰임으로 짜여 있을 뿐, 복합문구성의 통사론적인 公理나 規律를 導出하는 데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복합문은 문장이 될 수 있는 단위가 두개 이상 겹쳐진 문장이라 하여, 그것은 곧 內包文을 가진 문장과 상응한다. 그리고 복합문의 종류는, 1) 겹침복합문(結合複合文), 2)

21) 補語의 적식으로 引用해 온 단위를 '들임말'이라 하여 補語와 구별하는 별도의 문장성분으로 보기도 한다.

22) 「조선어 문법」과 대비해 보아서도 복합문에 대한 서술은 크게 달라진 부분의 하나다. 우선 배당된 면수에서 「조선어 문법」이 41면인데 대하여 13면에 불과하여 크게 縮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음복합문(接續複合文), 3) 얹힘복합문(合成複合文)으로 분류되었는데, 이음복합문은 그 안에서 i) 병립복합문(並列的 接續複合文)과, ii) 매임복합문(從屬的 接續複合的)으로 하위분류되었다.

VI. 맺는 말

本稿의 논의는 어떤 未解決의 문제에 대하여 假說을 제기하고 그것을 論證하여 妥當한 結論을 얻고자하는 성격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전체를 集約하여 하나의 簡明한 結論을 끌어 낸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각 분야의 논의를 통하여, 각기 그 대상과 특성이 다르고, 비록 概括的인 抽象性的의 것이라 하더라도 전체에 걸친 基底에 깔려 있는 本質과 같은 것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북한이 언어문제를 아무리 屈折시키고, 理念의 도구로 만들어 統制한다 하더라도 국어는 하나일 뿐이지 결코 두개의 국어가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近者 북한언어의 異質化문제가 심각하게 논란되어, 마치 異邦의 언어가 되어버린 것처럼 인식을 誤導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데 그것은 언어의 屬性上 현실적인 사회적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부 語彙의 交替 및 整理로 말미암아 빚어진 可變的인 表層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은 그러한 현상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강력한 言語統制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人爲的으로 劃一化시킨 規範의 틀안에 언제까지나 가두어 둘 수는 없다.

그렇다고, 북한의 국어연구를 過少評價하거나 외면해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그들이 겪어온 특수한 상황적 조건을 감안하면서, 脫理念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동안의 연구에서 거둔 成果를 분석검토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당면한 일이다.

本稿는 이와같은 측면에서 북한의 국어에 內在되어 있는 國語史 및 方言學的인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所謂 평양을 중심으로 한 地域의 국어를

규범화했다는 文化語의 基層에 접근하여 그 성격의 이해를 深化시키려 했다.

한편으로 북한의 국어 및 국어연구는 그들의 理念的인 言語觀과 言語政策의 굴레를 想定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때문에, 북한의 철자법이나 문법을 살피기에 앞서 言語觀이나 政策의 형성과 변천의 概要를 점검해 보았다.

다음은 文化語의 여러 規範을 살피는 작업의 일환에서 북한에 있어서 철자법이 성립되는 과정과 그 체계 그리고 변천을 조선어문연구회의 ‘조선어신철자법’으로부터 ‘조선어철자법’(1954)과 ‘조선말규범집’(1966)에 이르는 資料를 통해 ‘한글맞춤법통일안’과의 대비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조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폈다.

그리고 북한의 문법연구가 거둔 모든 成果를 結集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규범화했다고 할 ‘조선문화어문법’을 대상으로 잡아 그것에 반영된 문법범주들의 정립과 분석기술 그리고 그것들의 체계구성과 전개등에 대하여 검토했다. 우선 북한 문법의 편제는 전통문법과 다르지 않아 語音論, 形態論, 文章論으로 짜여졌는데, 本稿의 서술도 그것을 따랐으며, 주로 눈길을 끄는 특징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개요를 浮刻시키려 했다. 특히 문법의 중심부는 形態論이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토’의 문제는 북한 문법의 핵심을 이루는 특징적인 기술이다. 따라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과연 국어의 어형변화에 나타나는 형태론적인 구조체계를 그와같이 획일화하여 ‘토’로써 총괄하는 것이 적정하나 하는 데 대해서도 살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의 언어규범화에 있어 가장 힘을 기울인 분야는 역시 語彙分野다. 그것은 언어가 사회·문화와 직접접촉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언어현실에서 異質化現象이 심각하게 침투된 것도 語彙다. 이 어휘체계의 變革問題는 문법의 문제와는 그 層位도 다르고 屬性도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省察이 있어야 할 문제로서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둔다.